

가자지구 휴전안 합의 발표: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당장 나가라!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는 계속된다!

1월 15일 가자지구 휴전안이 발표돼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맞서 굳건하게 저항해 온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번 발표에 느낄 기쁨과 눈물을 함께 나눈다.

지난 15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가장 잔혹한 형태의 인종 학살을 저질러 왔다. 가자지구에서 최소 4만 700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학살되고 11만 명이 부상당했다. 그중 다수는 어린이와 여성이었다. 살아 남은 가자 주민 220만 명은 폭격으로 인해 폐허로 변한 집에서 쫓겨나 천막 아래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병원을 폭격하고 학교로 대피한 피란민을 학살했다. 환자와 의료진을 나체로 끌고가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 잔혹한 만행 속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은 강인한 생명력을 전 세계에 보이며, 희망과 자유, 해방을 위해 싸웠고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의 표상이 됐다. 마침내 휴전의 희망과 안도를 느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우리는 깊은 연대를 표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과 인종청소를 완전히 멈추려면 연대가 계속돼야 한다.

현재 일단 합의된 것은 42일간의 휴전이다. 핵심 문제인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가자 철군은 아직 합의된 바 없다. 지난해 11월 말 헤즈볼라와 맺은 휴전 합의를 이미 500차례 이상 위반한 이스라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다.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동안에도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서안지

구에서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휴전 합의 발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최소 팔레스타인인 73명을 살해했다.

퇴임 직전 80억 달러 규모 무기 지원을 이스라엘에 제공한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1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트럼프도 이스라엘의 인종청소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 때 주이스라엘 미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영토 대부분을 합병하는 것을 지지했다. 네타냐후가 묘사했듯, 트럼프는 “이스라엘 최고의 친구”다.

1월 19일에 열리는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행동의 날’은 이스라엘과 학살을 지지·지원해 온 모든 세력들, 이스라엘의 편에 서겠다고 천명한 트럼프를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변함 없는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구호처럼 “멈추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연대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팔레스타인이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가자지구에서 나가라!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지원 말라!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는 계속된다!

2025년 1월 17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재한 팔레스타인인·아랍인들과 국내 45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명하고 함께합니다.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서울 집회와 여러 지역 집회, 다양한 활동 소식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도 팔로우하세요!

웹사이트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문의: 010-7550-2131 | people.freepalestine@gmail.com | palestine-solidarity.or.kr | 인스타그램 @people.freepalestine

Statement

Announcement of Gaza ceasefire agreement: Israel out of Gaza now!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continues!

On 15 January, ceasefire agreement in Gaza was announced and will come into effect on 19 January.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shares the joy and tears of the Palestinian people who have stood steadfast against Israel's genocide.

For the past 15 months, Israel has been committing the most brutal form of genocide in Gaza. At least 47,000 Palestinians have been massacred and more than 110,000 injured in Gaza. Many of them were children and women. The 2.2 million surviving Gazans have been driven from their bombed-out homes and are living under tents, suffering from hunger and disease. Israel bombed hospitals and massacred people who took refuge in schools. Patients and medical staff were dragged out naked, tortured and killed.

Throughout these brutal atrocities, Palestinians have shown the world their resilience, fighting for hope, freedom, and liberation and becoming a symbol of resistance against injustice. We express our deepest solidarity with the Palestinian people who will finally feel the hope and relief of a ceasefire.

But solidarity must continue if Israel's genocide and ethnic cleansing is to be stopped once and for all.

For now, what has been agreed upon is a 42-day ceasefire. The core issue of a complete Israeli withdrawal from Gaza has not yet been agreed upon. Nor can we fully trust Israel, which has already violated the ceasefire agreement it signed with Hezbollah in late November last year more than 500 times. Israel has continued to bomb

Gaza even during the ceasefire negotiations, and to carry out attacks in the West Bank. Since the ceasefire was announced, Israel has killed at least 73 Palestinians.

Like Biden, who provided Israel with \$8 billion in arms aid just before leaving office, Trump, who will be inaugurated as US president on 20 January, will continue to support Israel's ethnic cleansing. In his last term, Trump moved the US embassy to Jerusalem and supported Israel's annexation of most of the West Bank. As Netanyahu described him, Trump is "Israel's best friend."

The Global Day of Action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on 19 January will be an opportunity to condemn Israel, and all those who have supported and continue to support the apartheid regime, and Trump, who has pledged to stand by Israel, and to affirm our unwavering solidarity with the Palestinian people.

In the words of the global Palestine solidarity movement, "We will not stop, we will not rest." Our solidarity will continue until the Israeli forces completely withdraw from Gaza and until Palestine is finally liberated from the River to the Sea.

Israel out of Gaza now!

US government must stop supporting Israel!

Solidarity with Palestinian people continues!

17 January 2025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with Palestinians, Middle Easterners and North Africans in Korea, and 45 organizations

For more information on Palestine solidarity movement, visit our website! Follow us on social media.

website



Fundraising account Shinhan Bank 110-173-517650 (최영준) Fund will be used for hosting and promoting Palestine solidarity protests